

# 프랑스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의 비교

프랑스 문화 산책  
2014130430 이지현

# 주제 선정 동기

- 빈센트, 빈센트, 빈센트 반 고흐를 읽다가 고흐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미술사조가 있었고 어떤 미술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됨
- 교수님께서 동양의 시서화가 일찍이 존재한 이유와 서양에서 이러한 글과 그림이 함께있는 작품이 나중에 등장한 이유를 비교하는 것이 관찬을 거라고 하셔서 흥미가 생겨 세부 주제에 추가함

# 서양미술 동양미술

우리나라의 문인화와 서양의 풍경화 비교



가을 저녁 호들러 (스위스, 19세기)  
원근법 등 수학적 표현을 중요시하여 정확한 풍경의 묘사를 목적으로 한다.-자연을 균형있고 기하학적으로 알맞은 비례를 이루게 표현하려함



서원소정 겸재정선 조선시대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인간을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인간의 관계를 나타냈다-작가의 내면감동이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을 빌림

# 서양에서 시서화가 늦게 나타난 이유?



동양에는 직업 화가가 아닌 선비들이 그리는 문인화가 많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군자인 매난국죽을 그렸는데, 이것은 매난국죽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매난국죽이 의미하고 있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와 함께 그린 것이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그림이 내포하는 의미를 위한 그림을 많이 그린 반면 서양에선 대상 그 자체를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사물을 그 자체로만 인식하여 마그리트의 'this is not a pipe'와 같이 그림과 표현된 사물 외의 의미가 포함된 글이 함께 나타난 형식이 늦게 등장하게 됨

# 19세기 말 프랑스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

프랑스

19세기 말 아카데미즘 미술이 보편적

아카데미즘 미술에 반대되는 인상주의 미술의 등장

인상파 빈센트 반 고흐

한국

19세기말 혼란스러운 시대상

아직 전통적인 회화가 대부분

최초의 서양 화가 고희동

# 빈센트 반 고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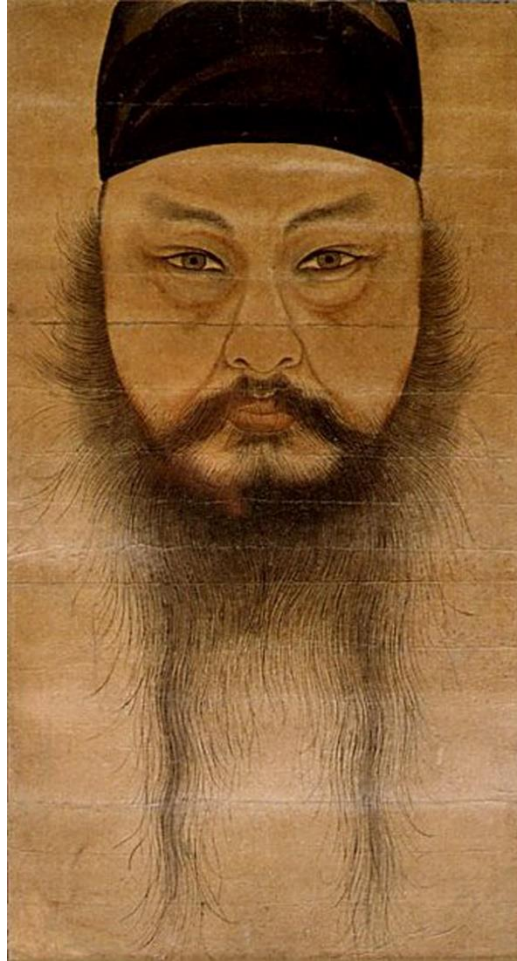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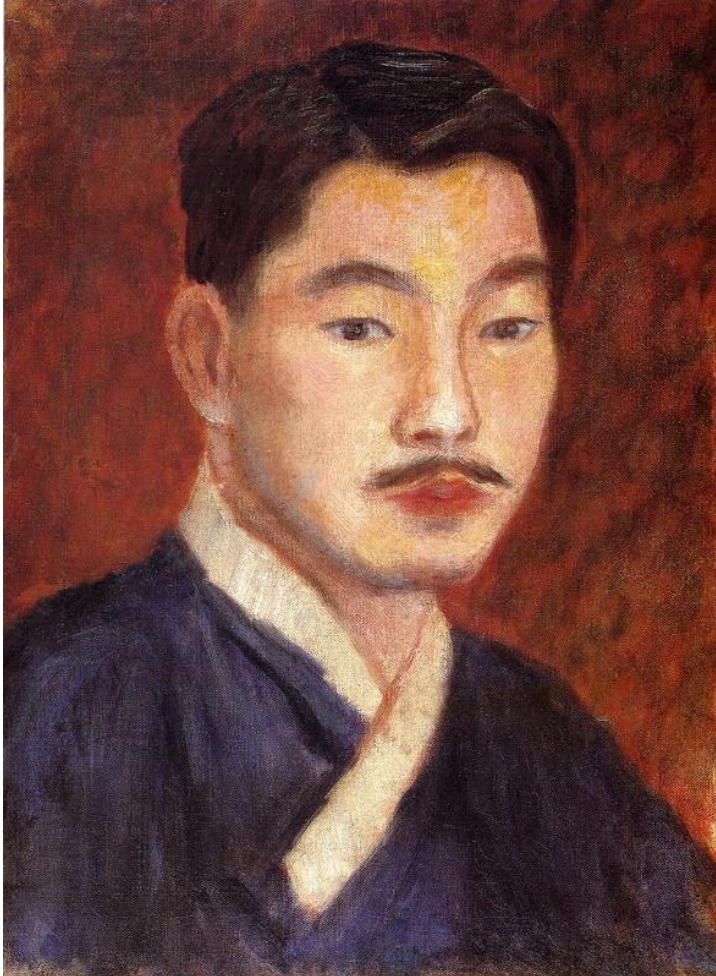
-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 아카데미즘의 인물화 비교



아카데미즘의 화가들이 인물을 그릴 때 안정적인 구도와 원근법, 해부학에 초점을 맞춘 전통 회화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고흐는 전통 회화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대상을 본 그 느낌대로 그리려고 하였다.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하기 보다는 눈 앞에 있는 것들을 그렸다. 아카데미즘처럼 사실적이고 세세하게 그리기 보다는 최대한 특징을 부각시키고 색감을 통해 느낌을 살렸다.

# 고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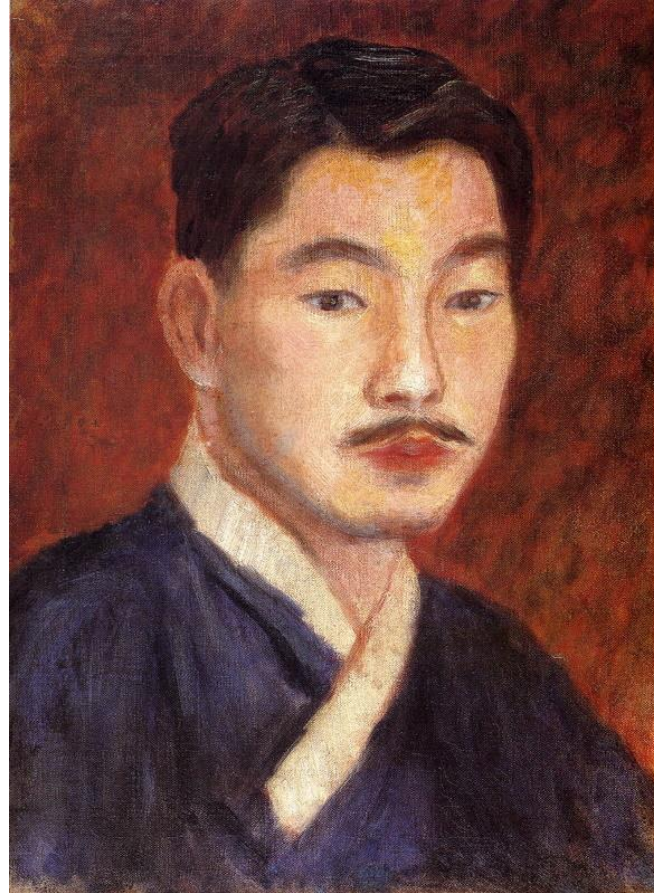
## • 고희동의 자화상과 전통적인 인물화 비교



왼쪽의 초상화는 우리나라 초상화 중 걸작이라고 여겨지는 윤두서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아카데미즘처럼 정확한 인체비례나 해부학에 의거하여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수염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려낼 만큼 세밀한 묘사를 통해 사실적으로 인물을 표현하였다. 고희동의 자화상은 기존의 자화상처럼 세세한 묘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색채를 통하여 인물의 느낌을 전달하려 하였다.

# 고흐와 고희동의 자화상 비교

• 인상주의 기법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고희와 고희동은 모두 소위 말하는 인상주의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였다. 고희는 색채의 조합과 선이 드러나는 채색으로 자신의 느낌과 기분을 잘 살렸고, 고희동은 최초의 서양 화가로 인상주의적 색을 표현하였으나 동양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그의 초상화를 보고 그의 상황이나 기분을 추측하기 어렵다.